

中國의 傳統的 價值體系와 共產主義

張 虎

- | | |
|-------------------------|---------------------|
| I. 序 論 | IV. 中山先生과 中國傳統 |
| II. 傳統文化에 대한 共產黨의 基本 態度 | V. 共產主義와 中國傳統文化의 衝擊 |
| III. 中國의 傳統과 傳統價值 | VI. 結 論 |

I. 序 論

廣義의 「價值」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事物(valued things)과 사람들이 각종 事物에 對하여 내린 「價值判斷」(value judgement), 모두를 포함한다. 前者는 外在世界 및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後者는 바로 사람들의 主觀的인 感情·意志의 產物이다. 예를 들어, 이스튼(David Easton)은 그 「體系理論」에서 지적하기를 「價值」는 價値를 가진 事物이라 하였고, 미첼(William C. Mitchell)은 그의 「美國政體」 가운데서 「價值」를 가리켜 信仰(belief)·規範과 事物에 對한 價値判斷이라고 하였다.¹⁾ 「價值」에 對한 以上の 定義에 따르면, 本文에서 말해지는 內容은 後者에 속할 것인 바, 즉 사람들이 각종 事物에 對해서 내린 價値判斷이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곧 미첼의 소위 信仰·規範 및 價値判斷인 것이다.

1) 「雲五社會科學大辭典」(臺北：臺灣商務印書館，民國 60 年 2 月)，第 3 冊：政治學，p. 367.

價値와 思想의 關係는 어떠한가? 價値와 文化의 關係는 또 어떠한가? 思想은 一種의 精神的인 活動으로, 精神活動의 經驗을 總괄하여 산출된 知識과 信仰이다. 이런 지식과 신앙이 만일 個人的인 精神活動의 結果라면 바로 개인적인 價値觀念이고, 一群의 人間의 精神活動의 結果라면 곧 社會的인 價値觀念이다. 만일 全國 人民의 精神活動의 結果라면 바로 國家, 或은 民族的인 價値觀念인 것이다. 만일 하나의 思想이 오랫동안 傳統的인 發展을 거쳐 형성되어 그 一群의 人間, 或은 全體 人民의 共同信仰이 되었다면, 이 一系列의 思想, 信仰은 바로 그 一社會, 或은 國家의 傳統的인 價値體系가 되는 것이다. 余英時教授는 中國政治의 傳統을 말하면서, “歷史적으로 볼 때, 中國의 政治 傳統에 對한 儒家의 影響이 제일 深遠하다”고 하였다.²⁾ 그러므로 儒家의 思想이 곧 中國을 代表하는 傳統的인 價値體系인 것이다.

本文에서는 思想·價値 및 文化에 對한 以上の 定義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共産黨의 傳統文化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中國의 傳統과 傳統價値, 孫中山先生과 中國 傳統 및 共産主義와 中國 傳統文化의 충격에 대하여 나누어 論述하고자 한다.

Ⅱ. 傳統文化에 대한 共産黨의 基本態度

共産黨은 傳統文化에 對하여 대략 두 가지의 기본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하나는 「澈底한 決裂」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文化는 過去의 文化와 關係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批判·繼承」으로, “人類的 全體 歷史·文化의 기조 위에서 프롤레타리아트文化를 建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사실상, 이른바 「批判·繼承」은 실제로는 「澈底한 決

2) 余英時, “反智論與中國政治傳統”, 本文은 余英時著, 「歷史與思想」(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民國 65 年), p. 4.

3) 汪學文, 「毛共反儒尊法運動析論」(臺北: 國際關係研究所, 民國 64 年 5 月), p. 2.

裂」인 바, 왜냐하면 共產黨의 唯物史觀에 근거할 때 무릇 傳統文化는 모두 共產主義와 서로 어긋나는 점을 갖고 있어 共產黨은 기본적으로 傳統文化를 繼承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澈底한 決裂

마르크스는 物質生活의 生産方式이 社會 最下層의 基礎라고 인식하였다. 生産方式만이 사람과 사람간의 生産關係를 發生시키기 때문에 生産關係와 生産方式은 상호 適應한다. 生産方式이 變化하면 生産關係 또한 이에 따라 變化하며, 生産關係의 總和가 또 社會의 經濟構造를 구성한다. 이러한 經濟의 구조는 또한 其他 上部構造, 즉 法制 및 政治의 사실상의 기초인 것이다. 換言하자면, 마르크스가 社會의 上部構造라고 인식한 法制와 政治의 構造는 經濟構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社會 이데올로기 역시 경제구조와 서로 적응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역사의 과정에서는 意識이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其他의 政治·道德·宗教·法律·哲學·藝術 등은 모두 경제 변천의 제약을 받으며, 傳統的인 價值觀念 或은 規範·制度가 社會의 經濟發展과 서로 적응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모두 낱날이 排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共產黨은 本質적으로 反傳統的이다. 「共產黨宣言」은 “共產主義革命은 過去로부터 물려내려온 所有制 關係와 가장 철저히 決裂하므로, 極히 자연스럽게 共產主義는 스스로의 발전 과정 가운데 과거로부터 물려내려온 각종 관념과 가장 철저히 결렬되어야 한다”⁴⁾고 주장하고 있다. 「코민테른 綱領」은 비단 「프롤레타리아트專政과 文化革命」이라는 章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中國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고생하고 있는 農民」에게 理想을 向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國民黨과 반드시 「결사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아울러 「孫文主義의 理想」에 對해서도 反對하도록 要求하고 있

4) 「共產黨宣言」; 여기서는 「共產黨原始資料先輯」(國際關係研究所轉印, 民國 58年 10月) 第1冊, p.49에서 引用.

다.⁵⁾

毛澤東은 「新民主主義論」 가운데 말하기를 中國에는 두가지 종류의 文化가 있다고 하였다. 한 종류는 「帝國主義文化」인데 이것은 帝國主義가 中國을 政治·經濟적으로 「統治」 或은 「半統治」하고 있음을 反映해주는 것으로서 奴隸化思想을 포함한 모든 文化는 모두 이 종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종류는 「半封建文化」인데 이것은 半封建的 政治와 半封建的 經濟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무릇 孔孟을 숭상하고 經書를 의주면서 舊禮敎와 舊思想을 높이 제창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文化를 代表하는 것이다. 「帝國主義文化」와 「半封建文化」는 文化的으로 「反動同盟」을 결성하여 中國의 「新文化」에 反對하고 있다. 이러한 「反動文化」는 「帝國主義」와 「封建階級」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모두 打倒되어야 한다. “反動的인 舊文化를 打倒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新文化도 모두 건설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파괴없이 건설없고, 막힘없이 풀림이 없듯이 그들 사이의 투쟁은 生死를 건 투쟁인 것이다.”⁶⁾ 이른바 舊文化란 바로 中國의 傳統文化이다. 1966年 8月, 中共 「8次 11 中全會」는 「프롤레타리아트文化大革命」에 關한 決定」을 통과시키고 「破四舊」(舊文化·舊思想·舊風俗·舊慣習)와 「立四新」(新思想·新文化·新風俗·新慣習)을 특별히 제출하였다. 이른바 「破四舊」란 즉 中國의 傳統文化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고, 소위 「立四新」이란 곧 共產主義의 새로운 文化를 건설하는 것이다.

2. 批判·繼承

레닌의 傳統文化에 對한 태도를 간단히 말한다면 바로 「批判·繼承」의 태도를 취했다고 할 것이다. 「舊社會가 남겨놓은 것」 가운데서 共產主義에 對하여 有利한 것과 有害한 것으로 구별해내고, 有利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다.⁷⁾

5) 「共產國防綱領」; 「共產黨原始資料選輯」, 第2冊, p. 64에서 引用.

6) 「毛澤東選集」(人民出版社, 1950), 第2卷, p. 688.

7) 「레닌文選」(Moscow: FLP, 1950), 第2卷, pp. 800~803.

中共의 中國傳統文化에 對한 基本的인 태도는 최초로는 레닌의 주장처럼, 傳統文化에 對하여 「批判・繼承」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毛澤東이 文化大革命을 일으키자, 中共의 中國傳統에 對한 태도도 변하여 「철저한 決裂」을 지향하게 되었다. 中共이 傳統文化에 對해 「批判・繼承」方式을 취하게 된 까닭은 中國의 悠久한 文化價値를 否定할 도리가 없는 故로 曲解하도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中共은 「진정한 三民主義」를 實行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中共이 三民主義를 否定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曲解하여 批判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實際로 中共의 모든 行爲는 三民主義와 완전히 背馳되는 것이다.

中共의 傳統文化에 對한 「批判・繼承」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은 孔子思想에 對한 批判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孔子의 「學而伏則仕」^{A)}를 批判할 때에는 孔子가 「反動的인 奴隸主階級」을 위한 官僚 培養」을 教育의 基本方針으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治民의 官僚」를 배양하기 위해서 孔子는 「奴隸主階級」의 「禮・樂・射・御・書・數」라는 六藝를 教育의 內容으로 삼았으며, 그 門徒들에 대하여 「人民을 鎮壓하는 軍事能力」을 주입시켰다고 한다.^{B)} 이것은 명백히 공자를 헐뜯는 것이다. 사실상, 政治에는 幹部가 없을 수 없고, 幹部에게는 또한 學問과 特技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學而伏則仕」는 결코 妥當성이 없을 수 없다.

또 예를 들면, 中共은 「有敎無類」^{B)}를 批判할 때, 孔子가 결코 「奴隸階級」을 教育의 對象으로 삼지 않고, 단지 奴隸階級에 對해서는 反動的인 教育과 軍事訓練을 실행한 데 불과할 뿐이어서 근본적으로 「全民教育」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⁹⁾ 中共이 孔子의 「王道仁政」을 批判할 때에는 孔子

A) 배워서 우수하면 곧 관료가 된다.

8) 「人民日報」(1971.7.19): 「批判孔丘的教育思想」(孔子의 教育사상 비판)

B) 가르침이 있을 뿐 가리지 않는다.

9) Ibid.

의 「仁」 역시 뒤에 儒家에서 말해지는 「王道」와 「仁政」이라고 지적한다. “이것들은 反革命的 暴力的인 피투성이의 은폐막에 불과할 뿐, 그 끝자는 바로 「霸道」, 「暴政」이라 착취제급의 專政이다.”¹⁰⁾

이러한 批判들로부터 보면, 이른바 「批判・繼承」은 中共이 中國의 傳統文化를 否定할 도리가 없을 때 唯物主義的인 觀點을 使用하여 曲解하는 것으로, 그 曲解의 目的은 바로 否定에 있다.

Ⅲ. 中國의 傳統과 傳統價值

「傳統」이란 무엇을 일컫는가? 「正統」은 무엇을 일컫는가? 統은 “系이고 屬으로, 무릇 世上에서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가르켜 統이라 한다. 皇統・道統같은 것 등이다.”¹¹⁾ 「道統」은 곧 「傳道」의 系統이고, 「傳道」와 「道統」을 합친 것이 바로 전통임을 알 수 있다. 傳統은 또 正統과 支統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正統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계속되면서, 또한 일개 國家의 대다수 사람들을 지배해 온 價值觀念이다. 이른바 支統이란 단지 일개 國家에서 어떤 한 時期에 대다수 사람들이 공동으로 받아들인 信仰・價值觀念이 아닌 것이다. 儒家는 中國의 正統이고, 儒家思想은 中國의 正統을 代表하는 價值觀念이다. 道家와 佛家に 對해서, 韓愈는 原道 가운데서, “斯道也, 何道也?” “斯吾所謂道也, 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라고 말하였다.¹²⁾ 道家(老)와 佛敎가 비록 中國에서 일정한 영향을 만들어 냈으나, 결코 中國의 正統이나 正統文化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中國의 正統文化인가? 韓愈는 「原道」에서 堯로부

10) 「人民日報」(1971.9.25): 「學習魯迅批判孔家店的徹底革命精神」(魯迅이 孔子를 비판한 철저한 혁명정신을 학습하자).

11) 「辭海」(臺北:中華書局, 民國 46年), 第二版, p. 81.

12) 韓愈, 「原道」: 「古文觀止」(臺北:正言出版社, 民國 60年 11月), p. 321에서 引用; “이 道는 어떤 道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道로서, 앞에서 말한 老子和 佛家の 道가 아닙니다.”

더 시작해 그 傳道の 經過를 論하면서 말하기를,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 文武·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死不得其傳焉·荀子楊也, 擇焉而不精, 語焉而不詳.”이라고 말하였다.¹³⁾

以上の 韓愈의 論述로부터 中國에는 하나의 正統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니, 곧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이다. 그러나 韓愈의 論理에 따른다면 堯·舜과 孔·孟子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 荀子와 楊雄까지도 中國의 正統의 人物이 아니라는 결론인듯 한데, 사실상 韓愈의 中國의 옛 聖賢에 對한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 中國의 正統人物이 堯·荀·孔子·孟子 등 밖에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中國의 傳統이 儒家를 正統으로 함으로 儒家思想이 곧 中國의 傳統價値를 代表한다. 孔子의 道統에 이어 차례로 排列한다면, 中國의 正統을 代表하는 人物로는 堯·舜·孔子·孟子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楊雄·王通·韓愈·周濂溪·張載·程頤·程顥·朱熹·陸象山·王守仁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처럼 범위를 확대시킨다 하여도, 이들 人物들로 中國의 正統을 代表하는 人物을 삼아 유감이 없을 만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堯·舜과 陸象山 및 王守仁이 한가닥 中國의 價值體系를 形成하였다면, 그렇다면 한제통을 경과해서 傳해진 道(價値)는 또 무엇인가? 韓愈는 「原道」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夫所謂先王之教者何也? 博愛之謂仁, 行而宜之之謂義, 由是而之之謂道, 足乎己

13) *Ibid.*, p. 324.

; “堯는 이 道를 舜에게 傳해 주었고, 舜은 이 道를 夏의 禹에게 傳해 주었고, 夏의 禹는 이 道를 商의 湯에게 傳해 주었고, 商의 湯은 이 道를 文王·武王·周公에게 傳해 주었고, 文王·武王·周公은 孔子에게 傳해 주었으며, 孔子는 또 孟軻에게 傳해 주었다. 孟軻가 죽은 이후에는 眞傳을 얻은 자가 없었다. 荀卿과 楊雄은 선택했으니 精純치 못하고 설명했으니 詳細하지 못하였다.

無待於外之謂德。其文：詩·書·易·春秋；其法：禮·形；其民：士·農·工·賈；其位：君臣·父子·師友·賓主·昆弟·夫婦；其服：麻·絲；其居：宮·室；其食：粟·果蔬·魚肉。¹⁴⁾

이것이 中國의 文化이고 中國의 生活方式이며, 곧 中國의 傳統價値의 具體的인 表現인 것이다.

韓愈는 以上の 이들 傳統價値의 具體的인 형태를 일러 仁義之道라 불렀으니, 또한 中國의 固有한 倫理道德으로 「忠·孝·仁·愛·信·義·和·平」의 八德이고, 蔣介石總統이 제창했던 「禮義廉恥」의 四維인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학술 용어를 써서 말한다면 바로 人文主義로서, 이것이 곧 中國 傳統文化의 中心思想인 것이다.

「大學」에 이르기를 “古之欲明明法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欲齊其家者，先修其身；欲修其身者，先正其意.”¹⁵⁾라 하였다. 그러나 「治國平天下」나 或은 「修身齊家」를 막론하고 모두 반드시 근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四維八德—禮義廉恥, 國之四維, 四維不張, 國乃滅亡¹⁶⁾—인 것이다. 中國은 5千年的 歷史를 갖고 있는데, 國家가 亡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古代로부터 지금까지 傳해져 온 四維八德의 위대한 역량

14) *Ibid.*, p. 323.

; “이른바 先王의 敎化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博愛를 일러 仁이라 부르고, 일하여 마땅한 것을 일러 義라 부르고, 仁義에 비추어 해나가는 것을 일러 道라 부르며, 스스로의 天性을 매우 원만하게 수양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이 없음을 일러 德이라 부른다. 써서 成功한 책은 詩·書·易·春秋이고, 治國의 法度는 禮·樂·刑이고, 人民은 士·農·工·商의 4종류로 나누어지고, 사람의 地位關係는 君臣·父子·師父·賓主·兄弟·夫婦 등이고, 입는 것은 麻·絲이고, 사는 곳은 宮室이며, 먹는 것은 곡식과 채소·과일·魚肉인 것이다.”

C) 옛사람은 天下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밝은 德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國家를 잘 다스리려 하였고, 자신의 國家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려 하였으며,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몸부터 잘 닦으려 하였고, 자신의 몸을 닦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마음이 平正하도록 하였다.

D) 禮·義·廉·恥는 나라의 4개 근본이다. 4개 근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나라가 곧 滅亡한다.

때문인 것이다.

IV. 中山先生과 中國傳統

中山先生의 思想은 中國의 傳統觀念의 現代的인 具體的 表現이다. 戴季陶先生은 「孫文主義之哲學의 基礎」라는 책 가운데서, “中山先生의 思想은 완전히 中國의 正統思想으로서, 바로 堯·舜과 孔子·孟子 이래 중간에 단절되었던 仁義道德을 계승한 思想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中山先生의 思想이 3千年 以來 중간에 단절되었던 中國의 道德文化의 復活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1924) 한 러시아 革命家가 廣東에 가서 先生에게, ‘당신의 革命思想의 基礎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었다. 先生은 그에게 답변하기를, ‘中國의 正統的인 道德思想은 堯·舜·禹·湯·文·武·周公로부터 孔子에 이르러 단절되었는데, 나의 思想은 바로 이 正統的인 道德思想을 繼承하여 發展시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先生에게 다시 질문하자, 先生은 여전히 이 한마디 말로 답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⁵⁾

中山先生의 道德思想의 主要 內容은 智·仁·勇과 八德 그리고 「大學」 속에 열거되어 있는 8가지 修身·治國의 項目을 포괄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智·仁·勇과 八德, 그리고 「大學」의 8가지 항목이 바로 中山先生의 哲學의 思想體系를 구성하고 있다.

蔣介石 前總統은 「仁」의 의의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個人의 價値는 그의 品格·道德과 智仁勇의 仁字에 모두 연계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爲仁인 것이다. 仁을 위하여서 지식을 구하고, 용감하게 우리의 仁을 實現하여야 한다. 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三民主義이다. 三民主義의 民族主義, 民權主義, 民生主義가 바로 爲仁인 것이다. 爲仁은 당연히 自己

15) 戴季陶, 「孫文主義之哲學의 基礎」(臺北: 帕朱爾書店, 民國 41 年), 初版, p. 21.

個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고, 또한 바로 사람을利物게 하는 것이다. 三民主義의 價値는 바로 人間을 위하고, 일반 國民을 위하고, 全世界의 人類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다.¹⁶⁾

智는 무엇인가? 中山先生은 軍人精神教育 가운데 軍人の 智에 대해 4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是非를 분별하고, 利害를 밝히며, 時勢를 認識하며, 彼我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是非를 분별하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是非의 분별은 道에 맞는가 안맞는가에 있다. 是非를 충분히 분별하고 利害를 능히 밝히며, 더 나아가 時勢를 인식하고, 彼我를 인정한 연후에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이 되는 道德에 맞지 않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智의 完備條件이 구성될 수 있다. 智의 첫째 필수조건은 是非를 분별하는 것이며, 是非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仁을 아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仁은 智가 마땅히 인식해야 하는 목표이다. “智로 仁을 안다”는 까닭은 智가 仁을 인식하는 先決條件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勇인가? 勇은 바로 仁을 行하는 條件이다. 仁을 認識하고 仁을 實現할 方法이 있는데, 만약 仁을 實行할 勇氣와 氣魄이 없다면, 곧 仁의 條件은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智로써 仁을 안다”는 것 말고도 “勇으로써 仁을 行하는 것”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勇은 곧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을 또한 진정한 용기라고 칭할 수는 없다. 勇에는 大勇과 小勇의 구별이 있다. 목표와 지식이 없는 勇은 小勇이며, 또한 즉 智가 없고 仁이 없는 勇이 小勇이 되는 것이다. 大勇은 仁이 있고 智가 있는 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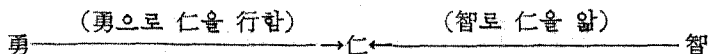
智·仁·勇, 세 가지의 關係에 對해 陳立夫先生은 그 저서 「四書道貫」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羅剛, 「三民主義의 體系與原理」(臺北: 正中書局. 民國 63 年 2 月), 第 7 版, p. 369.

17) *Ibid.*

말로써 몸에 맞는 道는 즉, 배움을 좋아하여 智에 도달하고, 힘써 행하여 仁에 도달하며, 부끄러움을 알아 勇에 도달하는 데 있다. 三者 가운데 仁을 제일 중요히 여긴다. 그러므로 智는 곧 仁을 아는 것이고 勇은 곧 仁을 行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는 모두 誠에서 나온다고 말해진다.¹⁸⁾

陳立夫의 해석은 마치 「中庸」의 第二十章처럼, “배움을 좋아하는 것은 知에 가까울고, 힘써 행함은 仁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勇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錢穆先生은 中國에는 「五達道」(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있으며, 이 「五達道」의 實現은 同時에 智·仁·勇과 배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錢穆先生은 智·仁·勇에 對하여, “智는 智慧와 知識이고, 仁은 사람과 사람의 감정상의 두터운 뜻이며, 勇은 용감하게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다”¹⁹⁾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智·仁·勇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의 그림으로부터 智·仁·勇의 세 가지에서 仁이 中心이 되고, 또한 곧 仁이 主가 되고 智·勇은 從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智·仁·勇의 關係를 명백히 했으므로, 이제 八德을 설명하고자 한다. 中山先生은 民族主義 속에서 八德을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國固有의 道德을 말한다면, 中國인이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가운데 첫째는 忠孝이고, 둘째는 仁愛이며, 그 다음은 信義이고, 그 다음은 和平으로 이들 舊文化를 中國인은 지금까지 여전히 말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外來 민족의 압박을 받고 新文化가 侵入하여 저들 新文化의 勢力이 이 시간 中國을 騁행하니 新文化에 마음을 빼앗긴 일반인들은 곧 舊文化를 배척하면서, 新文化가 있으므로 舊文化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 固有의 것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보존해야 하고, 나쁜 것이 있을 때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18) 陳立夫, 「四書道貫」(臺北:世界書局, 民國 55年 11月), 再版, p.7.

19) 錢穆, 「中華文化十二講」(臺北:三民書局, 民國 17年), 初版, p.31.

八德은 中國의 固有한 좋은 道德으로서 당연히 보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中國固有의 道德이 많은데, 中山先生은 어찌하여 단지 八德만 확정하였는가? 왜냐하면, 八德은 모두 仁에서 이끌어 나온 것으로, 仁은 道德思想의 本體이고 八德은 모두 仁의 一系列이기 때문이다. 仁은 人類生存의 근본원리이고, 忠孝는 바로 人類生存을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義務이며, 仁愛는 곧 인류생존을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觀念이고, 信義는 곧 인류생존을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規律이며, 和平은 곧 인류생존을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手段이다. 그러나 八法은 여전히 智·仁·勇에 의지해서 실천되며,²⁰⁾ 그 상호관계는 옆의 표로 설명될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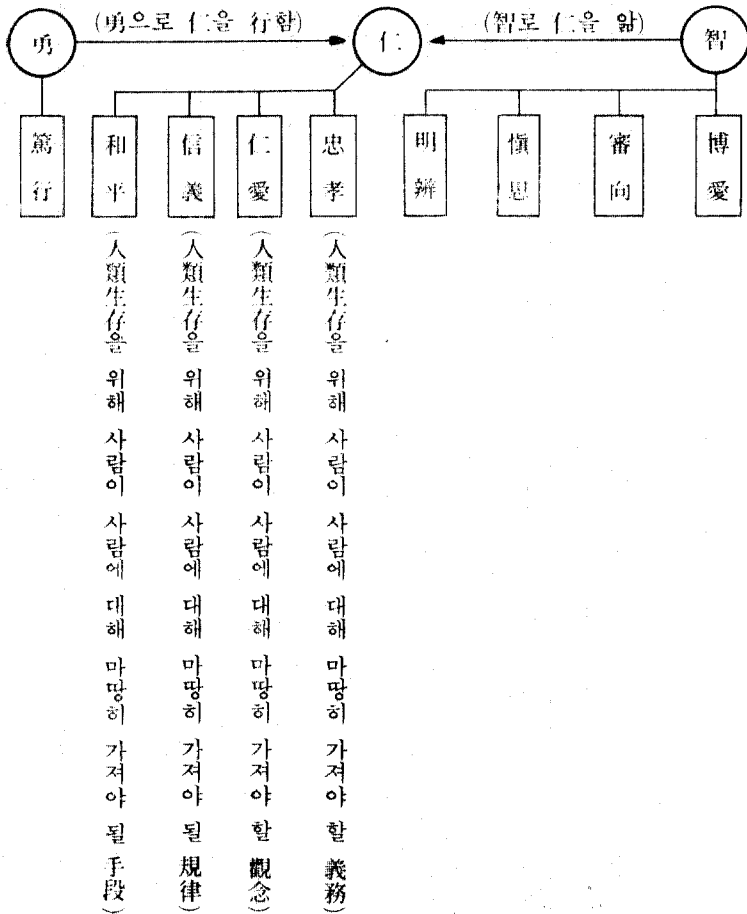
以上이 中山先生의 哲學의 道德思想의 體系이다. 道德은 實行에 중점을 두지 空談에 두지 않으며, 道德思想의 淵源과 關係는 「知」의 부분일 뿐이다. 어떻게 實行하는가는 行에 속하는 부분이다. 알 수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이 空談이다. 「大學」에서 말한 바, 格物·致知·正心·誠意·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8개 條目이 바로 行의 순서이다. 蔣介石 前總統은 圖表를 사용해서 「大學」 8項 條目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²²⁾

- ① 大學은 古今과 中外를 막론하고 가장 精微하고 博大하며 完美하고 高尚한 政治哲學이다.
- ② 大學은 처음부터 끝까지 兼備되고 體用이 合一된 自己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明體達用之道이다.
- ③ 聖賢이 아니면 곧 禽獸가 된다. 수확(결과)을 묻지 말고 밭갈이(과정)를 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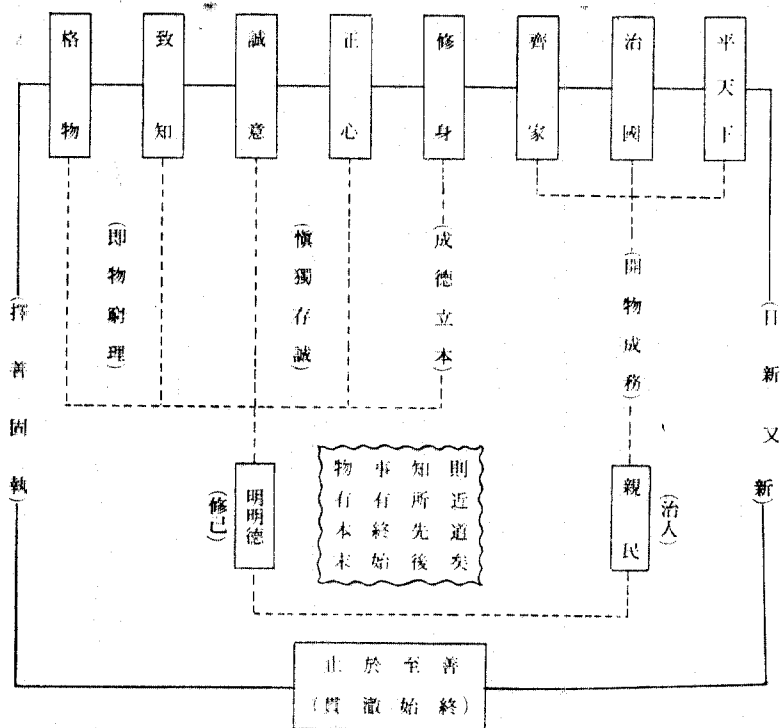
20) *Ibid.*

21) 羅剛, 앞의 책, p. 391.

22) *Ibid.*, p. 393.



④ 大學의 綱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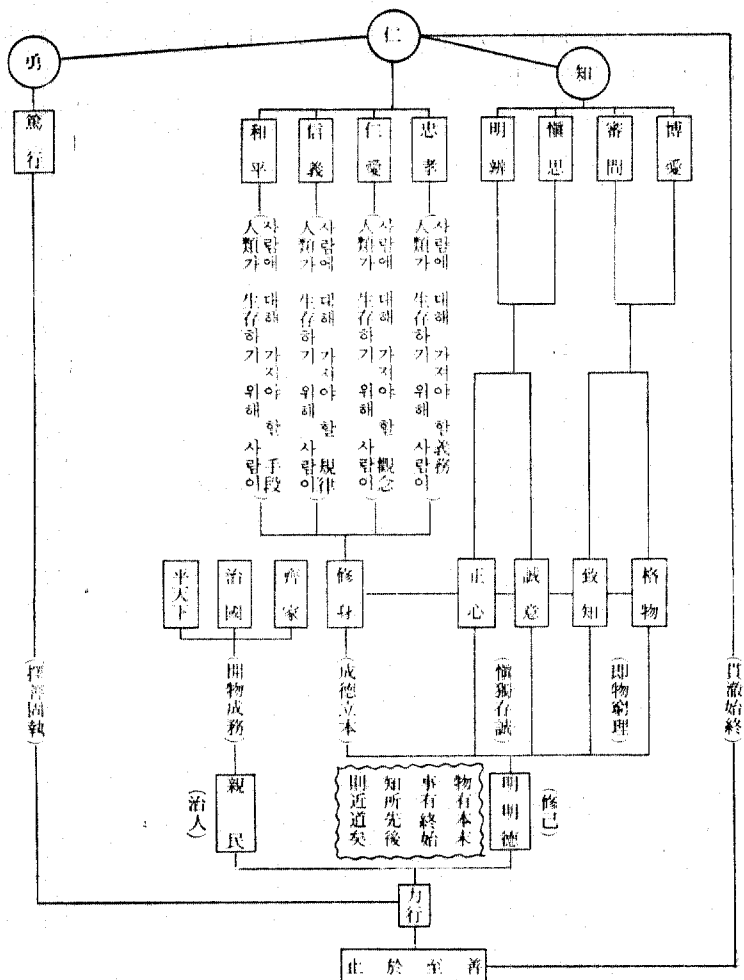


羅剛教授는 智·仁·勇, 八德과 「大學」의 8項 條目的 관계에 근거하고 이를 종합하여 中山先生의 哲學·道德思想 體系를 옆의 그림과 같이 編製해 냈다.²³⁾

V. 共產主義와 中國傳統文化의 衝擊

中山先生의 思想이 中國 正統의 價值體系의 現代적인 구체적 표현인 이

23) Ibid., p. 395.



상, 中山先生의 三民主義의 倫理·民主·科學에서 共產主義를 살펴본다면 共產主義와 中國의 傳統 사이의 衝突은 바로 쉽게 간파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倫理가 자신의 性을 다하려는 까닭은 그 근본이 仁에 있기 때문이고, 民主가 남의 性을 다하려는 까닭은 그 道가 義에 있기 때문이며, 科學이 事物의 性을 다하려는 까닭은 그 효능이 智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자신의 仁을 이룩하고, 事物의 智를 이룩하며”, “남의 義에 도달하려는” 文化가 바로 中國의 傳統文化인 것이다.²⁴⁾

그러나 共產主義는 文化가 經濟基礎의 상부구조이고, 계급 사회에서 文化는 여전히 「階級鬭爭」의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以上에서 기술한 바로부터 中共이 中國의 傳統文化를 취급하는 정책은 「興無滅資」(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프롤타리아트 이데올로기를 양양함)와 「先破後立」(먼저 파괴하고, 나중에 건설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共產主義를 中國에서 實行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中國의 전통적인 가치관념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基本的인 思想은 唯物思想으로, 宇宙의 모든 事物은 모두 物質에서 결정된다. 唯物論으로부터 矛盾의 理論이 산출되었고, 矛盾의 理論으로부터 階級鬭爭의 思想이 산출되었다. 마르크스의 唯物思想에 근거하면 人類의 文明은 鬭爭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서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래서 모든 사물은 矛盾으로 가득차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友愛와 상호협조가 아니라 원한과 투쟁이 있다.

그러나 中國의 傳統哲學은 줄곧 「天人合一」, 즉 「心物一體」를 궁구하여 왔다.²⁵⁾

共產主義가 신봉하고 있는 唯物主義는 人類의 精神을 物質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는 人本精神을 反對하고 사람의 靈魂과 物質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 中國의 傳統精神은 사람을 中心體로 삼고, 目的으로 삼는데 반하여, 共產主義는 사람을 도구로 삼는다. 실로 蔣介石前總統이 말한 바와 같다.

우리는 人性을 尊重하나, 毛澤東의 共產黨은 人性을 消滅시킨다. 우리는 人權을 保衛하는데, 毛澤東의 共產黨은 人權을 유린한다. 우리는 人道를 유지·보호하는

24) 蔣介石 前總統의 民國 57年(1968) 11月 12日 「國父一百卅三誕辰暨文化復興節紀念大會」에서의 연설. 中國青年反共救國團編, 「共匪如何破壞中華文化」(民國 60年 10月 10日), p. 358.

25) 錢穆, 앞의 책, p. 138.

때, 毛澤東의 共產黨은 人道를 滅絶시킨다. 우리는 人格을 발양시키는데, 毛澤東의 共產黨은 人格을 모독한다. 우리는 人倫을 공고히 하는데, 毛澤東의 共產黨은 人倫을 否定한다.²⁶⁾

中國의 傳統文化가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中國의 家庭을 基本單位로 하는 社會構造인 것이다. 家庭이 擴大된 것이 家族이고, 家族이 擴大된 것이 種族이며, 種族이 擴大된 것이 國民이다. 中國의 傳統文化는 倫理를 根本으로 하는 文化로서, 家庭에서는 父慈子孝(부모는 자애하고 자식은 효도함)와 兄友弟慈(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경함)을 강구하고, 社會에서는 親睦하고 서로 協調하며, 老人은 經驗을 갖고 壯年은 쓰임새가 있고 幼年은 자랄 수 있고 고독한 사람들은 모두 保護받을 수 있도록 강구한다. 이러한 社會가 바로 倫理的이고 民主的인 社會이며, 이것이 곧 中國이 5千年의 끊임없는 悠久한 文化를 보존해 올 수 있었던 까닭이 되는 基礎인 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신봉하고 있는 矛盾의 鬭爭으로써 中心을 삼는 共產主義는 비단 中國의 傳統文化와 서로 융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中國의 傳統文化를 극력 배척한다. 中共은 共產主義가 중국 사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1949년부터 시작하여 앞뒤로 「土地改革」, 「農業合作社」, 「人民公社」, 그리고 「文化大革命」을 일으켰다. 中國에 共產主義를 전파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작업은 中國의 傳統倫理를 代表하는 家庭을 破壞하는 데서 시작하여 「人民公社」로 中國의 家庭을 대체해 조직하고 中國의 윤리를 철저히 破壞하는 것이라고 中共은 認識하고 있다. 中國人은 倫理를 行爲의 基準으로 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和解와 상호 협조를 강구한다. 그러나 中共은 怨恨과 鬭爭에서 出發하여, 부모가 자식에 鬭爭하고, 부인이 남편에 鬭爭하기를 要求한다. 예를 들어 「思想改造運動」 시기에 대륙에서 「胡適思想」을 청산하자는 문장을 쓴 사람이 바로 胡適의 아들 胡思杜였고, 「文化大革命」 시기에 中共이

26) 蔣介石 前總統의 民國 55年(1966) 12月 25日 國民大會憲政研討委員會 제 1차 회의에서의 연설: 汪學文, 「毛共反儒尊法運動析論」, pp. 10~11에서 引用.

30年代 左翼 作家였던 歐陽山과 투쟁할 때 수천명이 모인 투쟁대회에서 최초로 단상에 올라 비분강개하여 歐陽山과 명백한 선을 그은 사람이 16세된 歐陽山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中共 統治下의 대륙에서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이상의 것은 사소한 예일 뿐이다. 中共은 「文革」 기간 동안 「家庭革命化運動」을 시작하였고, 家庭은 “私學의 방공호이고, 修學의 대피항이며, 四舊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毛澤東思想」으로 남은 이데올로기를 씻어내기 위해 家庭에 「毛澤東思想 學習班」을 창설하도록 강요하였고, 「家庭大批判」을 전개시켰다. 「大批判」 중에는 “자식이 부모를 비판할 수 있으며, 부인이 남편을 교육시킬 수 있다.” 中共은 “부모가 보는 것은 毛主席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人民의 아이」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행위가 만일 「毛澤東思想」에 위배되면 아이는 ‘父母에 거역’ 할 수 있는 것이다.

中共은 以上の 「家庭革命」 以外에도 學校와 社會에서 학생들에게 學校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교사들과 투쟁하도록 사주하였으며, 毛澤東이 바로 「부처」이고 「하나님」이며 「모하메드」라고 말하고 「毛語錄」은 「聖經」이고 「코오란」이라고 하였다. 中國에서는 예로부터 儒家思想을 正統의인 教育思想으로 삼아왔는데, 中共은 「教育革命」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 社會主義의 새로운 中國에서는 착취계급을 위해 일하는 孔子思想과 資本主義, 修正主義가 설 땅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것들을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공고해질 수 없으며, 社會主義와 共產主義가 달성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 文化大革命 가운데서 孔子와 老子라는 두가지 봉건 잔재를 타도하고, 철두철미 반동적인 孔子思想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이다.²⁷⁾

儒家思想은 中國 傳統文化의 主流인데 孔子가 批判받는 상황에서, 孟子 또한 이를 면하기는 어렵다. 中共은 孔子를 가리켜 中國 哲學史上 天才論

27) 「人民日報」(1967.1.10), 第4版.

을 가장 먼저, 가장 영향력 있게 내세운 代表의 人物이라고 말한 以外에 또한 孟子를 가리켜 ‘我國의 戰國時代에 封建貴族의 대변인’이고, ‘戰國時期的 封建貴族의인 思想家이며 主觀的 唯心論者’이며, ‘奴隸制를 부활시킨 頑固派’이고, “儒家 중에서 衛道의 꾀말을 들고서 孔子의 反動思想을 굳게 유지·보호하였다”고 말하였다.²⁸⁾

中共은 孔孟의 傳統 教育思想을 批判한 外에, 學校 教師들에 對한 박해를 자행하였던 바, 이 또한 전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音樂家인 馬思聰은 美 下院 安全委員會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침통하게 말하였다.

1966년 가을, 나는 내가 이미 院長을 맡았었던 中央音樂學院으로 돌려보내졌다. 즉시, 나는 그것이 곧 紅衛兵의 學生 핵심분자의 분노가 되리라는 것을 감지해 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풀을 부어대고 욕설로 된 구호를 불었으며 나는 악마이고 반동 부르조아의 권위주의자라고 지적받았다. 그들은 나를 작은 방에 가두고 자백서를 쓸 것과 「國家」에 대해 범한 나의 罪過를 인정하도록 압박하였다.……그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한 폭행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다.²⁹⁾

사실상 이러한 박해를 받은 교사가 馬氏 하나만은 아니다. 「尊師重道」(스승을 존경하고 道를 중시함)는 中國의 傳統的인 倫理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中共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 대륙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反動的인 事物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VI. 結 論

蔣介石 前總統은 「中國之命運」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28) 「光明日報」(1972.7.13) 기사: “從哲學史看天才論的反動性”(哲學史에서 본 天才論의 反動性), 中共「北大」哲學系哲學史組 編寫, 「哲學史上的先驗論」(1972.11): 中共上海 復旦大學編, 「學習與批判」(1973.10.16) 참고.

29) 中國青年反共救國團, 「共匪如何破壞中華文化」, p. 127.

우리 中華民族이 아시아大陸에 建國하여 이미 5千年이 지났다. 세계적으로 5千年의 古國이면서 현재까지 역사적인 유적을 많이 이룩한 나라는 우리 中國이 있을 뿐이며, 비단 우뚝 獨存할 뿐만 아니라, 또한 世界의 平和를 애호하고 침략에 반대하는 各國과 함께 세계의 平和를 위해, 인류의 자유 해방을 위해 역사상 전에 없던 전쟁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승리와 영구적인 平和의 大道를 힘써 걷고 있다.³⁰⁾

陳立夫先生은 그 「四書道貫」의 序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文化의 特徵은 人類生存의 原理를 발현시킬 수 있어서 수억의 사람을 모아 한 가족으로 할 수 있고 5천여년의 빛나는 역사를 지속시켜 피락하지 않았다. 共產理論은 外國에서 온 것으로 우리 나라의 전통사상과 서로 背馳된다. 共產理論은 恨을 출발점으로 하여 간입함과 거짓을 手段으로 삼아 폭력에 의지하고 투쟁을 主로 하고 物質을 중시하고 人倫을 훼손시킨다. 우리나라의 仁愛로서 출발점을 삼고 誠으로 修身의 근본을 삼으며 도덕을 중시하고 平和를 사랑하고 信義를 구하고 中道를 主로 하는 民族信仰은 서로에게 적당하고 끝난다.³¹⁾

어떻게 中國은 ‘우뚝 獨存’ 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없이, 中國은 5千年의 傳統文化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中國은 歷史적으로 蒙古族와 滿洲族에게 두차례 國家를 잃었으나, 蒙古族와 滿洲族이 오히려 中華文化 속에서 同化되었고 아울러 中華 傳統文化에 주입된 새로운 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中國 傳統文化의 위대한 역량이다. 中山先生은 일찌기 中國 傳統文化의 역량을 인식해 냈고 따라서 그는, “우리민족의 도덕이 고상하기 때문에 국가가 비록 망하였으나 민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다. 비단 스스로의 만족이 존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外來 민족을 同化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³²⁾고 말하였다. 무엇이 中華民族의 高尚한 道德인가? 바로 앞에서 말한 堯·舜에서 孔子·孟子로 이어지고, 中

30) 蔣中正, 「中國之命運」(新中國出版社印行), p. 1.

31) 陳立夫, 앞의 책, p. 2.

32) 中國國民黨黨史史料編纂委員會編, 「總理全書」(臺北: 中央文物供應社, 民國40年), p. 71.

山先生에까지 一脈으로 전해진 智·仁·勇, 八德과 「大學」의 8가지 條目의 基本精神이 그것이다.

共產主義가 中國에 도입된 이래 中國의 傳統的인 價值體系는 중대한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中共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 이후에는 먼저 이른바 「5大運動」, 「3大改造」를 통과시켜 中國의 傳統的인 社會秩序를 타파하려고 기도하였고, 뒤이어 「文化大革命」을 발동하여 中華의 傳統文化를 극력으로 파괴하였다. 그러나 中華의 傳統文化는 民族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中共이 비록 여러차례 파괴하였으나 여전히 우뚝 솟아 지속되고 있다. 中共은 孔孟의 學說에 對한 批判鬭爭과 破壞가 성과가 없자, 소극적인 曲解를 진행하고 있다. 제일 뚜렷한 예로는 中華民國이 臺灣에서 中山先生의 三民主義로써 中國을 統一하자고 제의했을 때, 三民主義가 中國의 傳統的인 倫理, 民主와 科學思想을 代表하기 때문에 中共이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曲解를 대대적으로 가하여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三民主義」이고 中華民國이 臺灣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가짜 三民主義」라고 말하였다. 中山先生이 일찌기 共產主義는 中國에 맞지 않는다고 批判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일 中共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三民主義」라면 어째서 마르크스·레닌의 共產主義를 버리지 못하는가. 오늘날 鄧小平을 우두머리로 한 中共政權은 비단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緊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진정한 三民主義」의 繼承者이고 保護者인가는 매우 분명하지 않은가?

오늘날 中國의 分裂은 비단 國土의 分裂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分裂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中國은 歷史上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곧 中國의 傳統的인 價値의 지속문제이고 또한 中國의 存亡問題인 것이다. 中國의 장래의 統一은 어떠한 政權을 向한 統一이 아니고 中國의 傳統을 向한 統一이다. 中國의 傳統을 向한 統一이 있을 때만이 中國의 統一은 長久히 安定될 統一이 된다. 中華民國은 臺灣에서 反傳統

文化的인 共產主義에 反對하면서 中國의 傳統을 代表하는 三民主義를 維持・保護함과 아울러 實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大陸의 希望은 臺灣에 있는 것이다.